

濟州道老人에 관한 基礎調査

韓 昌 榮

1. 序 論

1.1. 研究目的

과거의 대가족제도하에서는 노인들은 오랜 경험을 토대로 농사짓는 일이나 家內手工業의 경영주 또는 총책임자로서 가정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分業化사회의 현상은 노인층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동시에 경제권마저 상실케 하는 현상을 빚어냈다.

가정내에서의 지위 저락은 노인들에게 소외감, 배신감, 저항심 등의 潛在意識을 품게 하였고 이로 인한 노소간의 갈등과 마찰은 노인학대의 형태로 받아드리게 됨으로써 오늘날의 한국노인들은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의 독립된 노후생활을 동경하고 희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퇴직후 10년, 2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할일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있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며, 무소득상태에서 노후생활비와 용돈 등을 자녀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을 무척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인한 노년인구의 증가와 平均壽命의 연장은 최근 더욱 加速化하고 있는바, 75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200만명선으로 전체인구의 5.6퍼센트선을 나타내고 있으며 80년대에는 8퍼센트선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들은 사회적 처우 여하 에따라서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¹⁾

한편 미국에서는 65歲以上の 老人人口가 10%나 되고 있으며 100歲以上の 老人이 13,000명을 헤아리고 있다고 한다.²⁾

우리 나라는 아직 미국처럼 老人人口가 많지 않지만은 장차는 그렇게 되어 갈 展望이 보인다.

1) 朴在侃, 老人敎科書, (서울: 韓國老人問題研究會, 1977) PP. 204~205.

2) Albert Rosenfeld, Prolongevity, (New York: Alfred A. Knopf, 1976) Preface.

2 논문집

오늘날의 老人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의 國家와 民族을 지켜 왔으며 後孫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해 온 功勞에 報答하는 뜻에서도 마땅히 老人은 尊敬받아야 하며, 健全하고 安樂한 老後生活 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老後對策에 대한 시급한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하다.³⁾

무릇 정책을 立案하기 전에 問題를 認知하고 그에 관한 資料를 蒐集하고 分析하기 위해서는 實態調查가 先行되어야 한다.

本研究는 濟州道로 問題를 限定해서 調査하고 있거니와 이미 濟州市의 老人에 관한 實態調查는 1976년에 행한 바 있다.⁴⁾ 그러므로 本研究는 濟州市의 老人에 관한 實態調查에 이어 계속적인 實態調查이다.

老人에 관한 地域社會生活 特히 都市와 農村에 있어서의 老人問題는 이미 第5回國際老年學會總會(1962)에서 다루어진 바 있거니와⁵⁾ 우리의 현실에서도 農村에 있어서의 老人問題가 全國의 추세에 따라 調査되고 研究되어야 한다고 본다.

濟州道를 “老人의 Paradise” 또는 “長壽의 고장”이라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變化하는 社會現象으로 인하여 濟州도의 老人에 관한 일도 變遷하고 있다. 新舊의 價値觀의 對立은 親子間의 世代的 對立으로 顯示되고 所謂 ‘斷切的 時代’를 낳게 하였다⁶⁾고 하거니와 濟州도에 이런 기미가 전혀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變化하지 않았다.

本研究는 아주 變化해 버리기 전의 老人實態를 把握해보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며 老人들의 現實感覺의 所在와 期待 등도 아울러 고찰함으로써 老人福祉를 위한 對策樹立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1.2. 研究內容과 範圍

1.2.1. 研究內容

本研究의 內容은 老人들에 관한 一般的인 調査를 하였다.

즉 老人과의 관련문제들로서 健康, 宗教, 經濟, 家庭, 飲食, 敬老, 餘暇善用, 教育, 觀光, 새마을運動, 福祉對策等 그 문제들을 廣汎圍하게 調査한 것이다.

1.2.2. 範圍

本研究는 濟州市를 除外한 南北郡의 老人實態와 그 意識構造 및 行政과의 聯關을 檢討함으로써 老人問題의 所在와 福祉行政의 向方을 模索하려는 데 있다.

本研究에서 다뤄 질 範圍는 다음과 같다.

가. 對象: 60歲以上の 南北郡居住老人을 對象으로 삼았다.

3) 朴在侃, 老後, (서울: 二友出版社, 1977) P. 356.

4) 拙稿, “老人問題에 關한 研究”, 濟州대학 논문집 제8집(1976), PP. 171~207.

5) 橋覺勝, 老年學 (東京: 誠信書房, 1976), P. 55.

6) 玄斗日, 韓國老人의 “生活構造에 關한 社會學的研究”, 建大學術誌, 第20輯 (1976), P. 465.

그 濟州道老人人口의 現況은 <表 1>과 같다.

<표1> 濟州道 老人人口 (1975)

		計	男	女
總 人 口 數		411,772	199,596	212,176
年 齡	60-64	9,133	3,080	6,053
	65-69	7,950	2,526	5,424
	70-74	5,819	1,663	4,156
	75-79	4,708	1,317	3,391
	80-84	2,303	581	1,722
	85이상	1,572	361	1,211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75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보고서

60歲以上老人人口는 7.6%, 65歲以上老人人口는 5.4%, 80歲以上老人人口는 0.9%를 차지하여 全國의 60歲以上 5.6%, 65歲以上 3.5%, 80歲以上 0.4%에 比하여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나. 地域: 南北郡을 對象地域으로 삼았으며 이른바 海岸地域으로는 邑面單位로 母集團을 選定하였으며 中山間地域에는 里單位로 母集團을 選定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海岸地域: 西歸邑, 大靜邑, 翰林邑, 城山面, 表善面(海岸을 따라 포장된 一周道路邊의 地域)

中山間地域: 松堂里, 衣貴里, 今岳里, 新坪里(中山間道路邊의 地域)

1.3. 研究方法

問題의 定立을 補完하기 위하여 國內外文獻을 蒐集調査하였다. 特히 質問紙內容을 作成하기 위해서 그에 關聯된 資料를 수집하여 參考하였다.

本研究調査는 크게 나누어 보면 豫備調査(Pilot study)와 本調査로 나누어진다. 前者는 77년 1월부터 7월까지 했으며, 後者는 77년 8월부터 10월까지 행해졌다. 後者를 하는데 있어서는 質問紙를 面接方法에 의해서 調査하였다. 對象地域選定에 있어서는 地域別分布狀況을 考慮하여 有意로 決定하였으며 邑面別 및 里單位別로 面接方法에 의한 質問紙作成에 있어서는 母集團의 代表性을 참작하여 母集團의 老人中에서 有意로 선정하여 面接하였다.

그 對象地域과 回收內容은 <表2>, <表3> 그리고 <表4>와 같다.

<표2> 質問紙 回收狀況 I (地域別, 年齡別)

		質問紙	回 收 數
總		計	200
地 域 別	中 山 間	60-69	43
		70세이상	39
		計	82
	海 岸	60-69	75
70세이상		43	
計		118	

< 3 >

質問紙 回収状況 I (里, 邑面別)

		質問紙	回	收	數
總		計			200
地 域 別	中 山 間	松堂里			20
		衣貴里			21
		今岳里			21
		新坪里			20
		計			82
	海 岸	西歸邑			24
		大靜邑			17
		翰林邑			33
		城山面			22
		表善面			22
		計			118

< 丑4 >

質問紙 回収状況 II (性別)

		質問紙	回	收	數
總		計			200
性		別	男 137	女 63	
地 域 別	中 山 間	60-69	18	25	
		70세이상	26	13	
		計	44	38	
海 岸	60-69	70세이상	60	15	
		70세이상	33	10	
		計	93	25	

<表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中山間地域에서는 男女人員數가 비슷하지만 海岸地域에서는 男子數가 많다. 이는 面接調査를 하는데 便宜한 점이 있었으며 老人意識의 所在를 보다 잘 把握하기 위해서이다.

調査對象者の 平均年齡은 <表 5>와 같다.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調査對象者の 平均年齡을 中山間地域과 海岸地域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前者는 70.5歲이며 後者는 70.2歲로 나타나고 있으며 總平均年齡은 70.4歲로 나타나 大体로 70歲의 老人을 對象으로 調査했다.

그리고 老人問題를 고찰하는데 그 變數로는 地域別과 年齡別의 變數를 取하여 百分率에 의한

比較方法을 사용했다.

<표5> 調査對象者 年齡

		平均年齡		人員數
總計		70.4		200
地域別	中	60-69	64.0	43
	山	70세이상	76.9	39
	間	計	70.5	82
	海	60-69	65.0	75
		70세이상	75.3	43
	岸	計	70.2	118

2. 老人에 관한 調査

2.1. 老人과 健康

먼저 健康에 관한 문제를 살펴왔다.

<表 6>에 의하면 “아주 健康하다”가 14.0%, “普通이다”가 43.5%, “다소 病이 있다”가 37.5%, “누워서 산다”가 4.5%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아주 健康하다”는 老人과 “普通이다”라는 老人을 합하면 57.5%가 되고 “다소 病이 있다”와 “누워서 산다”는 老人을 합하면 42.0%가 된다. 그러므로 老人들은 다소 健康하다는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표6> 健 康

設問內容別	1		2		3		4		N.R.		總計		
	實數	%	實數	%	實數	%	實數	%	實數	%	實數	%	
總計	28	14.0	87	43.5	75	37.5	9	4.5	1	0.5	200	100.0	
地域別	中	11	25.6	12	27.9	18	41.9	2	4.6	—	—	43	100.0
	山	4	10.2	14	35.9	15	38.5	6	15.4	—	—	39	100.0
	間	計	15	18.3	26	31.7	33	40.2	8	9.8	—	—	82
別	海	8	10.7	40	53.3	26	34.7	1	1.3	—	—	75	100.0
		5	11.6	21	48.8	16	37.2	—	—	1	2.4	43	100.0
	岸	計	13	11.0	61	51.8	42	35.6	1	0.8	1	0.8	118

1. 아주 健康하다 2. 普通이다 3. 多少 病이 있다 4. 누워서 산다.

中山間地域或海岸地域老人들의 健康關係를 比較해볼 때, 中山間地域의 경우 “다소 病이 있다”가 40.2%로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며 海岸地域老人들은 “普通이다”에서 51.8%로 높은 反

6 는 문 점

應을 보여 주고 있다. 中山間地域의 경우 “아주 健康하다”와 “普通이다”를 합하면 50.0%이고 海岸地域의 경우는 62.8%로 海岸地域의 경우는 12.8%가 더 높다.

年齡別로 보면, 60~69歲老人의 경우 全体的으로 普通以上の 健康狀態는 58.3%, 70歲以上の 것은 53.2%로 나타나 나이가 들수록 健康狀態가 不良해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健康問題와 관련해서 濟南新聞에서 “나의 健康秘訣”이 21회에 걸쳐 連載되었다.” 이를 分析해 본다. 우선 “나의 健康秘訣”에 執筆陣의 平均年齡은 73歲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健康秘訣의 內容을 類型別로 分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過慾禁止 (7)
2. 過食禁止 (5)
3. 菜食 (7)
4. 規則的인 生活 (8)
5. 적당한 運動 (8 : 산책, 4:나씨, 3)
6. 부지런한 生活 (3)
7. 정신적 健康 (4)

여기서 “적당한 運動”과 “規則的인 生活”의 比重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菜食”과 “過慾禁止”가 다음으로 比重이 크다. 한편 “過食禁止”와 “菜食”을 합하면 12라는 比重이 나타나 長壽의 秘訣에 菜食養生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리회를 즐긴다는 老人이 2인이 있었다. 자리회는 健康에 좋다.”

다음으로 健康問題를 알아보기 위해서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몇살까지 勞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反應은 <表 7>과 같다.

<表 7> 勞動可能年齡

設 問 內 容 別	64以下	65-74	75以上	N, R,	總 計	
					實 數	%
總 計	37 18.5	95 47.5	28 14.0	40 20.0	200	100.0
中 60-69	9 20.9	22 51.2	2 4.7	10 23.2	43	100.0
地 山 70세이상	5 12.8	14 35.9	12 30.8	8 20.5	39	100.0
域 間 計	14 17.0	36 43.9	14 17.1	18 22.0	82	100.0
別 海 60-69	16 21.3	51 68.0	3 4.0	5 6.7	75	100.0
70세이상	7 16.3	8 18.6	11 25.6	17 39.5	43	100.0
岸 計	23 19.5	59 50.0	14 11.9	22 18.6	118	100.0

7) 濟南新聞, 1977. 5. 30~1977. 9. 5.

8) 拙稿, “濟州자리회”, 경향신문, 1977. 8. 10.(4).

<表 7>에 의하면 65—74歲까지 勞動을 할 수 있다는 老人이 47.5%, 그 다음이 64歲以下가 18.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老人들은 70歲前後까지 勞動을 할 수 있다는 性向을 보여주고 있어 老人의 就業問題가 심각하게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⁹⁾

地域別로 보면, 65~74歲까지 勞動을 할 수 있다는 老人이, 中山間地域의 43.6%에 비하여 海岸地域이 50.0%로서 6.1%가 더 많은 強勢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年齡別로 살펴보면 60—69歲의 老人이 70歲以上の 老人들보다 勞動에 대한 欲求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편 이와같은 경향은 間接的으로 老人들의 健康狀態를 가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2.2. 老人과 宗教

宗教는 個人의 Personality를 統合하고 個人의 生活을 組織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宗教는 老人의 生活態度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宗教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노인들의 生活態度와 心理性向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¹⁰⁾

<表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有宗教가 38.5%, 無宗教가 55.5%로 無宗教의 %가 더 많다.

<表 8>

宗教 有無

設 問 內 容 別	1	2	N.R.	總 計	
				實 數	%
總 計	77 38.5	111 55.5	12 6.0	200	100.0
中 計	16 37.2	24 55.8	3 7.0	43	100.0
地 山 70세이상	7 17.9	28 71.8	4 10.3	39	100.0
域 間 計	23 28.0	52 63.4	7 8.6	82	100.0
別 海 60-69	37 49.3	36 48.0	2 2.7	75	100.0
70세이상	17 39.5	23 53.5	3 7.0	43	100.0
岸 計	54 45.8	59 50.0	5 4.2	118	100.0

1. 有 2. 無

地域別로 보면 中山間地域에서 有宗教가 28.0%, 海岸地域의 것이 45.8%로 海岸地域에 살고 있는 老人들이 中山間地域의 老人들보다 宗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高齡化되어갈수록 宗教에 대한 關心度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2.3 老人과 經濟

老人의 經濟生活을 考察하기 위해서 經濟生活을 자식 또는 家族과 統合與否의 문제, 生計對

9) 權重暉 “老人에게도 보람있는 일을 주어야”, 중앙일보, 1977. 10. 22.(4).

10) 權重暉, “核家族化와 老人問題”, 省谷論叢, 第4輯 (1973), P. 665.

8 논 문 점

策, 용돈문제 그리고 適性에 알맞는 職業이 무엇인가를 살펴왔다.

첫째로 老人들의 經濟生活이 자식 또는 가족과 統合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分離되어 있느냐에 대한 反應은 <表 9>와 같다.

<표 9> 經濟 生活 (統合, 分離)

設 問 內 容 別	1	2	N.R.	總 計	
				實 數	%
總 計	109 54.5	85 43.0	5 2.5	200	100.0
中 60-69	21 48.8	21 48.8	1 2.4	43	100.0
地 山 70세이상	22 56.4	17 43.6	- -	39	100.0
域 間 計	43 52.4	38 46.3	1 1.3	82	100.0
別 海 60-69	43 57.3	30 40.0	2 2.7	75	100.0
70세이상	23 53.5	18 41.9	2 4.6	43	100.0
岸 計	66 55.9	48 40.7	4 3.4	118	100.0

1. 통합 2. 분리

經濟生活을 <表 9>에 의해서 살펴보면 가족과 “統合”이 54.5%, “分離”가 43.0%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과 통합하는 경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海岸地域이 55.9%로 中山間地域의 52.4%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는 大体로 高齡化에 따라 統合하는 경향이 다소 보이고 있다.

둘째로 老後의 生計對策을 살펴왔다. <表 10>에 의하면 “自身이 解決”이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子女에게 의존”이 43.5%로 나타나고 있어, 老人들은 老後의 生計對策을 뭘 수 있으면 自身이 解決하려는 反應을 짙게 보여주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自身이 解決”에는 비슷한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며 “子女에게 의존”은 海岸地域보다 (41.5%) 中山間地域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46.3%).

<표 10> 老後의 生計對策

設 問 內 容 別	1	2	3	4	N.R.	總 計	
						實 數	%
總 計	99 49.5	6 3.0	87 43.5	5 2.5	3 1.5	200	100.0
中 60-69	26 60.5	- -	16 37.2	1 2.3	- -	43	100.0
地 山 70세이상	15 38.5	1 2.6	22 55.3	1 2.6	- -	39	100.0
域 間 計	41 50.0	1 1.2	38 46.3	2 2.5	- -	82	100.0
別 海 60-69	37 49.4	4 5.3	32 42.7	1 1.3	1 1.3	75	100.0
70세이상	21 48.8	1 2.3	17 39.5	2 4.7	2 4.7	43	100.0
岸 計	58 49.2	5 4.3	49 41.5	3 2.5	3 2.5	118	100.0

1. 自身이 解決 2. 養老院에 갈 3. 子女에게 의존 4. 其他

年齡別로는 高齡化가 되어갈수록 “自自이 解決”에 弱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로 老人들의 生活費外에 쓰는 용돈에 관해서 살펴봤다.

<表 11>에서 나타난바에 의하면, 용돈 五천원이하가 62.0%, 五천원이상 1만원이하가 23.5%, 1만원이상 2만원이하가 3.0%로 나타나고 있다. “5천원이하”와 “5천원이상 1만원”을 합하면 85.2%로 老人들은 거의가 1만원이하의 용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地域別과 年齡別로 용돈에 관한 한 비슷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設 問 內 容 別	1		2		3		4		N.R.		總 計	
	實數	%	實數	%	實數	%	實數	%	實數	%	實數	%
總 計	124	62.0	47	23.5	16	8.0	2	1.0	11	5.5	200	100.0
中 60-69	23	53.5	12	27.9	5	11.6	-	-	3	7.0	43	100.0
地 山 70세이상	25	64.1	11	28.2	1	2.6	-	-	2	5.1	39	100.0
域 間 計	48	58.5	23	28.1	6	7.3	-	-	5	6.1	82	100.0
別 海 60-69	46	61.4	19	25.3	6	8.0	1	1.3	3	4.0	75	100.0
70세이상	30	69.8	5	11.6	4	9.3	1	2.3	3	7.0	43	100.0
岸 計	76	64.4	24	20.3	10	8.5	2	1.7	6	5.1	118	100.0

1. 五千원이하 2. 五천원이상~1만원 3. 1萬이상~2萬원 4. 2萬원이상

세계로 老人들의 適性에 알맞는 職業에 관해서 살펴봤다.

<表 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其他”가 47.5%로 으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無職業을 前提로 한것과 釜漁村에서는 농업과 어업이 老人들과도 關聯되어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또한 實際로 現地調査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老人들이 많았음을 確認했다. 이를 除外해서 살펴보면, “養畜”이 18.0%, “手工業”이 11.5%, “賣店”이 7.5%, “園藝”가 4.5%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에서 老人들에게 알맞는 職業으로서는 養畜이 강한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金相圭博士는 老人에게 가장 알맞는 職業으로서는 養畜이라 前提하고 이 方面의 事業斡旋이나 資金助成같은 서어비스가 要望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¹⁾

2.4. 老人과 家庭

老人과 家庭의 關係를 살펴보기 위해서 配偶者有無, 同居與否, 司祭與否, 生活形態, 生活上의 煩悶, 그리고 家庭에서 즐거운 일들에 관하여 살펴봤다.

첫째로 配偶者有無에 관해서 살펴보면 <表 13>과 같다.

11) 金相圭, 老人福祉의 体系의 研究, (경북: 慶北大學校出版部, 1976), P. 152.

<표 12> 適性에 알맞는 職業

設問內容別	1	2	3	4	5	6	7	8	N.R.	M.T (%)	N									
總計	36	18.0	9	4.5	23	11.5	15	7.5	6	3.0	1	0.5	2	1.0	95	47.5	18	9.0	102.5	200
中	10	23.2	1	2.3	3	7.0	4	9.3	-	-	-	-	1	2.3	24	55.8	4	9.3	109.2	43
山	7	17.9	2	5.1	1	2.6	2	5.1	-	-	-	-	-	-	25	64.1	3	7.7	102.5	39
城	17	20.7	3	3.6	4	4.9	6	7.3	-	-	-	-	1	1.2	49	59.8	7	8.5	106.0	82
地	17	22.7	2	2.7	11	14.7	7	9.3	5	6.7	-	-	-	-	28	37.2	5	6.7	100.0	75
別	2	4.7	4	9.3	8	18.6	2	4.7	1	2.3	1	2.3	1	2.3	18	41.9	6	13.9	100.0	43
70세이상	19	16.1	6	5.1	19	16.1	9	7.6	6	5.1	1	0.8	1	0.8	46	39.0	11	9.4	100.0	118
岸																				

1. 養畜 2. 園藝 3. 手工業 4. 賣店 5. 부역방 6. 수위 7. 레서사 8. 其他

<표 13> 配偶者 有無

設問內容別	1	2	N.R	總計		
				實數	%	
總計	112	56.0	85	42.5	200	100.0
中	25	58.1	18	41.9	43	100.0
山	19	48.7	20	51.3	39	100.0
間	44	53.7	38	46.3	82	100.0
域						
60-69	44	58.7	30	40.0	75	100.0
別	24	55.8	17	39.5	43	100.0
海	68	57.6	47	39.8	118	100.0
岸						

1. 有 2. 無

<表 13>에 의하면 配偶者가 있는 노인이 56.0%, 配偶者가 없는 노인이 42.5%, 無應答이 1.5%였다. 따라서 配偶者가 있는 노인의 比率이 다소 높다는 性向을 보여주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配偶者가 있는 노인이 中山間地域의 53.7%에 비해 海岸地域은 57.6%로 海岸地域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高齡化에 따라 配偶者가 있는 老人의 比率은 減少하여가는데 그 減少傾向은 10.0%內外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老人들이 가족과 同居與否를 살펴보면 <表 14>와 같다.

<표 14> 同居 與否

設問內容別	1	2	N.R.	總計	
				實數	%
總計	89 44.5	107 53.5	4 2.0	200	100.0
中 60-69	18 41.9	25 58.1	- -	43	100.0
地 山 70세이상	15 38.5	24 61.5	- -	39	100.0
域 間 計	33 40.2	49 59.8	- -	82	100.0
別 海 60-69	38 50.7	36 48.0	1 1.3	75	100.0
70세이상	18 41.9	22 51.2	3 6.9	43	100.0
岸 計	56 47.4	58 49.2	4 3.4	118	100.0

1. 同居 2. 別居

<表 14>에 의하면 “同居”가 44.5%, “別居”가 53.5%로 나타나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中山間地域에서 59.8%가, 海岸地域에서는 49.2%가 各各 別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中山間地域에서가 보다 더 別居하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는 高齡化에 따라 別居하는 傾向이 增加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老人들의 自活精神이 엿보인다.

세째로 老人들의 司祭與否에 관해서 살펴보면 <表 15>와 같다.

<表 15>에 의하면 “제사를 맡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가 42.0%, “아니

<표 15> 司祭 與否

設問內容別	1	2	N.R.	總計	
				實數	%
總計	84 42.0	114 57.0	2 1.0	200	100.0
中 60-69	18 41.9	25 58.1	- -	43	100.0
地 山 70세이상	12 30.8	27 69.2	- -	39	100.0
域 間 計	30 36.6	52 63.4	- -	82	100.0
別 海 60-69	37 49.3	37 49.3	1 1.4	75	100.0
70세이상	17 39.5	25 58.1	1 2.4	43	100.0
岸 計	54 45.8	62 52.5	2 1.7	118	100.0

1. 그렇다 2. 아니다

12 논문집

다"가 57.0%, 無應答이 1.0%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니다"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中山間地域에서 "아니다"가 63.4%, 海岸地域에서 "아니다"가 52.5%로 나타나 中山間地域의 노인들이 제사를 안맡고 있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高齡化에 따라 제사를 맡는 比率이 적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의 관행으로는 70歲가 되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하거나 위와 分析은 이런 관행과도 脈絡이 같은 것으로 본다.

네째로 老人들이 同居할 경우, 그 生活形態로서 안거리에 사는지 혹은 박거리 또는 모커리에 사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表16>과 같다.

<表16> 生活 形態

設 問 內 容 別	1	2	N. R.	總 計	
				實 數	%
總 計	105 52.5	88 44.0	7 3.5	200	100.0
中 60-69	27 62.8	16 37.2	- -	43	100.0
地 山 70세이상	25 64.1	13 33.3	1 2.6	39	100.0
域 間 計	52 63.4	29 35.4	1 1.2	82	100.0
別 海 60-69	35 46.7	37 49.3	3 4.0	75	100.0
70세이상	18 41.9	22 51.2	3 6.9	43	100.0
岸 計	53 44.9	59 50.0	6 5.1	118	100.0

1. 안거리 2. 박거리 또는 모커리

<表 16>에 의하면 "안거리에 산다"가 52.5%, "박거리 또는 모커리에 산다"가 44.0%로 안거리에 다소 많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地域別로는 中山間地域에서는 "안거리에 산다"가 63.4%로 높고, 海岸地域에서는 "박거리 또는 모커리에 산다"가 50.0%로 높은 性向을 보여주고 있다.

年齡別로는 中山間地域의 경우는 高齡化에 따라 안거리에 사는 경향이 더 나타나고 있으며 海岸地域의 경우에는 高齡化에 따라 박거리 또는 모커리에 사는 경향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老人의 care에 관한 公共政策은 老人으로 하여금 그들 自身의 家庭에 머물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에 있다고 한다.¹²⁾ 이로써 보면 같은 울안에 있는 박거리 또는 모커리에 老人들이 사는 生活形態야 말로 바람직스런 제주도 固有의 模型이라 하겠다.

다섯째로 生活上의 煩悶에 관하여 살펴보면 <表 17>과 같다.

12) N. ロバーツ, 三浦文夫 監譯, 老人問題, (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75), P. 214.

生活上的 煩悶

<표 17>

設問內容別	1	2	3	4	5	6	7	N.R.	M.T (%)	N								
總計	72	36.0	72	36.0	37	18.5	9	4.5	3	1.5	14	7.0	8	4.0	3	1.5	109.0	200
中	14	32.5	25	58.1	4	9.3	2	4.6	-	-	1	2.3	1	2.3	1	2.3	113.4	43
山	14	35.9	12	30.8	6	15.4	1	2.6	1	2.6	4	10.2	1	2.6	-	-	100.1	39
地	28	34.1	37	45.1	10	12.2	3	3.7	1	1.2	5	6.1	2	2.4	1	1.2	106.0	82
城	32	42.7	22	29.3	16	21.3	5	6.7	1	1.3	4	5.3	3	4.0	1	1.3	111.9	75
別	12	27.9	13	30.2	11	25.6	1	2.3	1	2.3	5	11.6	3	7.0	1	2.3	109.2	43
計	44	37.3	35	29.7	27	22.9	6	5.1	2	1.7	9	7.6	6	5.1	2	1.7	111.1	118

1. 건강상의 문제 2. 경제적인 문제 3. 가족문제 4. 주택문제 5. 직업, 일에 관한 문제 6. 기타 7. 있어도 말 못하겠음

<표 17>에 따르면 老人의 生活上的 煩悶으로서는 이른바 老人의 四苦(疾病, 貧困, 無爲, 孤獨)에 集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健康上の 문제”가 36.0%, “經濟적인 문제”가 36.0%로 같은 比重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족문제”가 18.5%, “기타”가 7.0%, “주택문제”가 4.5%의 順이다. 여기서 “其他”는 孤獨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地域別로는 中山間地域에서는 “經濟적인 문제”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海岸地域에서는 “健康上の 문제”가 제일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年齡別로는 60~69歲의 경우 中山間地域에서는 “經濟적인 문제”(53.1%)가 제일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고 海岸地域에서 “健康上の 문제”(42.7%)가 제일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70歲 이상의 경우는 모두 “경제적인 문제”에 반응이 높다. 여섯째로 家庭에서 즐거운 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表 18>과 같다.

<表 18>에 의하면 “손자와 노는 일”이 40.5%로 제일 높고 “飲酒”가 15.0%, “라기오, 테레비존觀覽”이 14.5%, “즐거운 일이 없음”이 10.5%의 順이다.

〈표18〉 家庭에서 즐기는 일

設問內容別	1	2	3	4	5	6	7	8	9	10	11	N.R	M.T (%)	N													
總計	29	14.5	30	15.0	11	5.5	12	6.0	10	5.0	15	7.5	18	9.0	24	12.0	81	40.5	21	10.5	1	0.5	-	-	122.0	200	
中 山 地 區	6	13.9	7	16.3	-	-	-	-	-	-	2	4.7	5	11.6	2	4.7	23	53.5	9	20.9	-	-	-	-	-	125.6	43
山 間 地 區	8	20.5	6	15.4	1	2.6	-	-	-	-	3	7.7	3	7.7	3	7.7	16	41.0	6	15.4	1	2.6	-	-	-	123.2	39
地 區 總 計	14	17.0	13	15.8	1	1.2	-	-	-	-	5	6.1	8	9.7	5	6.1	39	47.6	15	18.3	1	1.2	-	-	-	124.2	82
海 岸 地 區	18	24.0	15	20.0	7	9.3	6	8.0	5	6.6	7	9.3	5	6.6	14	18.6	21	32.0	3	4.0	1	1.3	-	-	-	139.7	75
山 間 地 區	7	16.3	2	4.7	3	7.0	5	11.6	5	11.6	3	7.0	5	11.6	5	11.6	18	41.9	3	7.0	-	-	-	-	-	139.3	43
地 區 總 計	15	12.7	17	14.4	10	8.5	11	9.3	10	8.5	10	8.5	10	8.5	19	16.1	42	35.6	6	5.1	1	0.8	-	-	-	134.5	118

1.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2. 飲酒
3. 食卓
4. 讀書
5. 수면
6. 娛樂(장기, 바둑등)
7. 家族과의 談笑
8. 가사를 도음
9. 손자와 노는 일
10. 즐기는 일이 없음
11. 其他

地域別로 봐도 中山間地域이나 海岸地域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年輪別로는 海岸地域의 경우 “飲酒”가 高齡化에 따라 20.0%로부터 4.7%로 急減하고 있음을 보여줄 정도이다. 손자와 노는 일이 제일 즐거운 노인들에게 그러한 즐거움을 안겨다줄 수 있는 生活形態가 前述한 박거리 또는 모거리의 模倣이라 할 수 있다.

2.5. 老人과 飲食

老人들의 固形式飲食과 軟式飲食에 대한 嗜好度를 살펴 보면 <表19>와 같다. <表 19>에 의하면 90.0%의 老人들이 軟式飲食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9.5%만이 固形式飲食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中山間地域이나 海岸地域의 경우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高齡化에 따라 軟式飲食에 대한 選好度가 높아지는 傾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19>

飲 食

設 問 內 容 別	1	2	N.R.	總 計	
				實 數	%
總 計	19 9.5	180 90.0	1 0.5	200	100.0
中 60-69	5 11.6	38 88.4	- -	43	100.0
地 山 70세이상	4 10.3	35 89.7	- -	39	100.0
城 間 計	9 11.0	73 89.0	- -	82	100.0
別 海 60-69	9 12.0	66 88.0	- -	75	100.0
70세이상	1 2.3	41 95.3	1 2.4	43	100.0
岸 計	10 8.5	107 90.7	1 0.8	118	100.0

1. 고행식음식 2. 연식음식

2.6. 老人과 敬老

노인들이 어느 정도 尊敬받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家族으로 부터 얼마나 尊敬받고 있느냐하는 問題와 市內버스에 乘車할 때 노인대접을 받고 있느냐하는 문제 그리고 작금의 敬老 事例를 살펴왔다.

첫째로 家族으로부터 老人들이 尊敬받고 있느냐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表 20>과 같다.

<表 20>

敬 老 I

設 問 內 容 別	1	2	3	N.R.	總 計	
					實 數	%
總 計	128 64.0	61 30.5	5 2.5	6 3.0	200	100.0
中 60-69	26 60.5	17 39.5	- -	- -	43	100.0
地 山 70세이상	19 48.7	14 35.9	2 5.1	4 10.3	39	100.0
城 間 計	45 54.9	31 37.8	2 2.4	4 4.9	82	100.0
別 海 60-69	52 69.3	20 26.7	3 4.0	- -	75	100.0
70세이상	31 72.0	10 23.3	- -	2 4.7	43	100.0
岸 計	83 70.3	30 25.4	3 2.6	2 1.7	118	100.0

1. 尊敬받고 있다. 2. 별로 關心의 對象이 안되고 있다. 3. 귀찮은 존재가 되고 있다.

<表 20>에 의하면 “尊敬을 받고 있다”가 64.0%로 나타나고 있으며 “귀찮은 존재가 되고 있다”가 2.5%로 老人들의 孤獨感을 다소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尊敬받고 있는 老人들의 比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敬老思想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했다.¹⁶⁾

그리고 제주도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제주”를 통해서 제주도의 忠孝事例를 잘 소개하고 있다.¹⁷⁾

2.7. 餘暇善用

老人들은 餘暇善用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어떤 趣味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表 22>와 같다.

<表 22>에 의하면 “其他”가 제일 많아 5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現地調査結果 농촌 어에서는 趣味를 살린만한 興件이 差成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除外하고 고찰하면 “바둑, 장기”가 23.0%, “讀書”가 8.0%, “旅行”이 7.5%, “花盆, 樹木손질”이 7.0%의 順이다. 여기서 “바둑, 장기”가 높은 反應을 보여주는 것은 농어촌에는 노인을 위한 오락시설이 많지 않다는 것을 立證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地域別로 보면 “其他”에는 中山間地域에서 64.6%로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어 中山間에서는 역시 농사에 큰 관심과 興味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讀書”, “旅行”, “花盆, 樹木손질”에 대해서는 海岸地域에서는 모두 10.2%의 反應을 보여주고 있는데 反해서 中山間地域에서는 약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高齡化에 따라 大体로 趣味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中山間地域에서는 “바둑, 장기”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8. 老人과 教育

요즘 老人의 教育問題는 世界的인 現象이거나와 老人들의 教育熱을 살펴보기 위해서 老人들의 배움에 대한 反應과 教育實態를 살펴 본다.

첫째로 老人들의 배움에 대한 反應을 살펴 보면 <表 23>와 같다.

<表 23>에 의하면 “원한다”가 44.5%, “원하지 않는다”가 53.5%로 “원하지 않는다”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中山間地域에서 “원하지 않는다”가 85.4%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海岸地域에서는 “원한다”가 66.9%로 教育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高齡化에 따라 “원하지 않는다”는 傾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老人教育實態를 살펴본다.

1976년은 제주도의 경우 “老人教育의 해”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体系的인 老人教育이 1976년에 서비롯되었기 때문이다.¹⁸⁾

16) 제주신문, 1977. 10. 28.(3).

17)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제주, (제35호) (1977), PP. 137~161.

18) 拙稿, “老人問題에 관한 研究”, 제주대학 논문집 제8집 (1976), P. 180.

趣 味

<丑22>

設問內容別	1	2	3	4	5	6	7	N.R.	M.I. (%)	N								
總計	14	7.0	15	7.5	16	8.0	46	23.0	3	1.5	2	1.0	110	55.0	10	5.0	108.0	200
中 60-69	1	2.3	2	4.7	2	4.7	6	13.9	-	-	-	-	28	65.1	4	9.3	100.0	43
山 70세이상	1	2.6	1	2.6	2	5.1	7	17.9	-	-	-	-	25	64.1	3	7.7	100.0	39
間 計	2	2.4	3	3.7	4	4.9	13	15.9	-	-	-	-	53	64.6	7	8.5	100.0	82
別 60-69	5	6.7	9	12.0	7	9.3	25	33.3	2	2.7	-	-	35	46.7	2	2.7	113.4	75
岸 70세이상	7	16.3	3	7.0	5	11.6	8	18.6	1	2.3	2	4.7	22	51.2	1	2.3	114.0	43
計	12	10.2	12	10.2	12	10.2	33	28.0	3	2.5	2	1.7	57	48.3	3	2.5	113.6	118

1. 花盆, 樹木손질 2. 旅行 3. 讀書 4. 바둑, 장기 5. 生花, 茶 6. 스포츠 7. 其他

<丑23>

배움

設問內容別	1	2	N.R.	總計				
				實數	%			
總計	89	44.5	107	53.5	4	2.0	200	100.0
中 60-69	6	13.9	35	81.4	2	4.7	43	100.0
山 70세이상	4	10.3	35	89.7	-	-	39	100.0
間 計	10	12.2	70	85.4	2	2.4	82	100.0
別 60-69	52	69.3	22	29.3	1	1.4	75	100.0
岸 70세이상	27	62.8	15	34.9	1	2.3	43	100.0
計	79	66.9	37	31.4	2	1.7	118	100.0

1. 원한다. 2. 원하지 않는다.

濟州福祉會설립 제주시노인학교에서는 1977년 5월 7일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졸업생은 金延彦할아버지등 69명이었으며 같은 날 입학식이 있었는데 입학생은 文忠明할아버지등 65명의 노인들이 만학의 꿈을 안고 입학했다.¹⁹⁾

한편 濟州福祉會설립 서귀노인학교에서는 1977년 9월 17일에 첫졸업식이 있었으며 졸업생 수는 42명의 老人들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입학식도 있었다고 한다.²⁰⁾

2.9. 老人과 觀光

요즘 老人觀光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으며 實際로 老人觀光이 盛行하고 있음을 본다.

지난 4월 카·페리就航과 함께 급증하기 시작한 外來觀光客數는 지난 10월현재 44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10월과 11월에 들어서는 관광객이 하루 2천5백명에서 3천명가량 제주에 찾아들고 있어 제주관광이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²¹⁾ 이런 경향에서 요즘 老人觀光, 또는 孝道觀光이 부쩍 늘고 있다.

이런 點에서 老人들이 觀光에 대해서 얼마나 關心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表 24>와 같다.

<表 24>

觀 光

設 問 內 容 別	1	2	3	4	N.R.	總 計	
						實數	%
總 計	83 41.5	57 28.5	51 25.5	8 4.0	1 0.5	200	100.0
中 60-69	13 30.2	17 39.5	11 25.6	2 4.7	- -	43	100.0
地 山 70세이상	8 20.5	20 51.3	11 28.2	- -	- -	39	100.0
域 間 計	21 25.6	37 45.1	22 26.8	2 2.5	- -	82	100.0
別 海 60-69	39 52.0	13 17.3	19 25.3	4 5.4	- -	75	100.0
70세이상	23 53.5	7 16.3	10 23.3	2 4.6	1 2.3	43	100.0
岸 計	62 52.5	20 16.9	29 24.6	6 5.1	1 0.9	118	100.0

1. 관심이 크다. 2. 관심이 없다. 3. 다소 관심을 갖는다.

<表 24>에 의하면 “관심이 크다”가 41.5%, “다소 關心을 갖는다”가 25.5%로 이를 합하면 67.0%로 나타나 老人들이 觀光에 대한 關心은 높다고 본다.

地域別로 보면 中山間地域에는 “關心이 없다”가 45.1%로 觀光에 대해서 낮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中山間地域에는 觀光에 대한 불이 스며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海岸地域에서는 “관심이 크다”가 52.5%로 제일 높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19) 제주신문, 1977. 5. 9.(3).

20) 濟南新聞, 1977. 9. 19.(1).

21) 濟南新聞, 1977. 11. 14.(2).

年齡別로는 高齡化에 따라 中山間地域의 경우는 關心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海岸地域의 경우에는 別差가 없다.

2.10. 老人과 새마을運動

새마을運動에 대해서 老人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老人들이 새마을運動에 대한 關心, 家庭儀禮準則에 대한 反應, 濟州道集團公園基地에 대한 의견 그리고 老人들의 活動事例를 살펴 본다.

첫째로 새마을運動에 대한 關心을 살펴보면 <表 25>와 같다.

<표 25>

새마을 運動

設問內容別	1	2	3	4	N.R.	總計		
						實數	%	
總計	99 49.5	53 26.5	37 18.5	10 5.0	1 0.5	200	100.0	
中山間地域	60-69	16 37.2	13 30.2	15 30.2	1 2.4	- -	43	100.0
	70세이상	10 25.6	10 25.6	13 38.5	4 10.3	- -	39	100.0
	計	26 31.7	23 28.0	28 34.1	5 6.2	- -	82	100.0
海岸別	60-69	49 65.3	18 24.0	5 6.7	3 4.0	- -	75	100.0
	70세이상	24 55.8	12 27.9	4 9.3	2 4.7	1 2.3	43	100.0
	計	73 61.9	30 25.4	9 7.6	5 4.2	1 0.9	118	100.0

1. 적극 참여하고 싶다. 2. 그럭저럭 참여한다. 3. 참여하지 아니한다. 4. 모르겠다.

<表 25>에 의하면 “적극 참여하고 싶다”가 49.5%, “그럭저럭 참여한다”가 26.5%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합하면 76.0%가 되어 老人들의 새마을運動參與도는 매우 높다고 본다.

地域別로 보면 中山間地域의 參與도는 59.7%이고 海岸地域의 것은 87.3%로 매우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海岸地域의 老人들이 새마을運動에 대한 關心도가 크다고 하겠다. 年齡別로는 高齡化에 따라 새마을運動에 대한 關心도는 減少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로 家庭儀禮準則에 대한 老人들의 反應을 살펴보면 <表 26>와 같다.

<표 26>

家庭儀禮 準則

設問內容別	1	2	3	N.R.	總計		
					實數	%	
總計	142 71.0	35 17.5	20 10.0	3 1.5	200	100.0	
中山間地域	60-69	31 72.1	3 7.0	8 18.6	1 2.3	43	100.0
	70세이상	23 59.0	8 20.5	8 20.5	- -	39	100.0
	計	54 65.8	11 13.4	16 19.5	1 1.3	82	100.0
海岸別	60-69	58 77.3	15 21.3	1 1.4	- -	75	100.0
	70세이상	30 69.8	8 18.6	3 7.0	2 4.6	43	100.0
	計	88 74.6	24 20.3	4 3.4	2 1.7	118	100.0

1. 실천되어야 한다. 2. 더 두고 봐야 한다. 3. 잘 모르겠다.

<表 26>에 의하면 “實踐되어야 한다”가 71.0%로 제일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實踐되어야 한다”의 反應에서, 中山間地域은 65.8%, 海岸地域은 74.6%로 海岸地域이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高齡化에 따라 積極的 反應이 減少하는 傾向이 보인다.

세계로 濟州道行政當局이 推進하고 있는 集鳳公園墓地에 대한 老人들의 反應을 <表 27>에 서 알아 봤다.

<表27> 集團公園墓地

設 問 內 容 別	1	2	3	N, R.	總 計	
					實 數	%
總 計	105 52.5	61 30.5	30 15.0	4 2.0	200	100.0
中 60-69	26 60.5	14 32.5	3 7.0	- -	43	100.0
地 山 70세이상	18 46.1	17 43.6	3 7.7	1 2.6	39	100.0
域 間 計	44 53.6	31 37.8	6 7.3	1 1.3	82	100.0
別 海 60-69	36 48.0	20 26.7	17 22.7	2 2.6	75	100.0
70세이상	25 58.1	10 23.2	7 16.3	1 2.4	43	100.0
岸 計	61 51.7	30 25.4	24 20.3	3 2.6	118	100.0

1.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2. 그저 그렇다. 3. 모르겠다.

<表 27>에 의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가 52.5%로 제일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에서 中山間地域의 反應이 海岸地域의 反應보다 1.9%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는 高齡化에 따라 中山間地域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反應이 減少하고 海岸地域에서는 反對로 增加하는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네째로 老人들의 活動事例를 살펴본다.

◎ 大韓老人會道支部가 불우노인돕기 기금을 조성하고 양로원등의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大韓老人會 전속국악단을 유치해서 巡廻公演을 지난 4월에 가졌다.²²⁾

◎ 威德老人淨化委員會에서는 해수욕장淨化事業에 앞장섰다.²³⁾

◎ 대한노인회도지부 1배50명의 회원들은 都市새마을運動促進大會를 열어 새마을운동에 앞장 설 것을 지난 9월에 결의했다.²⁴⁾

2.11. 老人과 福祉對策

老人에 대한 福祉對策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네에서 가장 必要한 것”에 대한 老人의 反應,

22) 제주신문, 1977. 4. 20.(3).

23) MBC-TV, “아침뉴스시간”, 1977. 7. 17.

24) 제주신문, 1977. 9. 6.(3).

“緊急한 福祉對策”에 대한 노인의 反應, 그리고 노인들이 “行政當局에 바라고 싶은 것”을 알아왔다.

첫째로 동네에서 가장 必要한 것에 대한 老人들의 反應은 <表 28>과 같다.

<표 28> 동네에 가장 必要한 것

設問內容別	1	2	3	N.R.	總計	
					實數	%
總計	85 42.5	68 34.0	35 17.5	12 6.0	200	100.0
中 60-69	13 30.2	20 46.5	7 16.3	3 7.0	43	100.0
山 70세이상	14 35.9	18 46.1	6 15.4	1 2.6	39	100.0
域 間 計	27 32.9	38 46.3	13 15.8	4 5.0	82	100.0
別 海 60-69	38 50.7	20 26.7	13 17.3	4 5.3	75	100.0
70세이상	20 46.5	10 23.3	9 20.9	4 9.3	43	100.0
岸 計	58 49.2	30 25.4	22 18.6	8 6.8	118	100.0

1. 경로당 2. 保健診療所 3. 其他

<表 28>에 의하면 “경로당”이 42.5%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이 “保健診療所”로 34.0%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中山間地域에서는 “保健診療所”가 46.3%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海岸地域에서는 “경로당”이 49.2%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는 別差가 없다.

둘째로 緊急한 福祉對策에 대한 老人들의 反應은 <表 29>과 같다.

<表 29>에 의하면 “의료시설”이 29.0%, “휴양시설”이 23.0%, “양노원”이 19.0%, “연금제도”가 15.0%의 順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시설이나 휴양시설이 時急하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地域別로 보면 中山間地域에서는 “의료시설”에 39.0%나 되는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海岸地域에서는 中山間地域과 對比해서 “연금제도”와 “휴양시설”에서 약간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年齡別로 보면 “휴양시설”에서 中山間地域이나 海岸地域 共히 高齡化에 따라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째로 노인들이 行政當局에 무라고 싶은 點을 알아본 結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體로 보면 敬老施設 또는 후생복지시설을 要望하고 있는데 中山間의 경우에는 道路施設, 의료시설 등을 要望하고 있다. 이외에도 資金支援, 不良輩誼예기, 不條里根絶, 畜産振興策 등이 있었음을 덧붙여 둔다.

緊急한 福祉施策

<표 29>

設 問 內 容 別	1	2	3	4	5	6	7	N.R	M.T (%)	N								
總 計	30	15.0	38	19.0	46	23.0	58	29.0	7	3.5	14	7.0	6	3.0	11	5.5	105.0	200
中 山 地 域 別																		
60-69	3	7.0	8	18.6	5	11.6	18	41.9	1	2.3	1	2.3	4	9.3	3	7.0	100.0	43
70세이상	5	12.8	7	17.9	9	23.0	14	35.9	1	2.6	3	7.7	-	-	3	7.7	107.6	39
總 計	8	9.7	15	18.3	14	17.0	32	39.0	2	2.4	4	4.9	4	4.9	6	7.3	103.5	82
海 岸 別																		
60-69	13	17.3	18	24.0	16	21.3	19	25.3	3	4.0	6	8.0	2	2.7	2	2.7	105.3	75
70세이상	9	20.9	5	11.6	16	37.2	7	16.3	2	4.7	4	9.3	-	-	3	7.0	107.0	43
總 計	22	18.6	23	19.5	32	27.1	26	22.0	5	4.2	10	8.5	2	1.7	5	4.2	105.8	118

1. 연금제도 2. 양노원 3. 휴양시설 4. 의료시설 5. 노인직업소개소 6. 노인세대보호 7. 기타

3. 結 論

옛날에 늙고 병든 사람을 생배장하는惡習이 우리 나라엔 있었다. 그러나 高麗朝이라는 이름의 이 못된 풍습은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 나라라는 역시 노인을 아끼고 존경하는 전통적인『敬老의 나라』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노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얼마전까지만 해도『노인문제라면 長幼를 가리지 않고 기계문명을 崇尙하는 서양의 애기인출만 알았다. 그러나 이제는 동양에서도 노인은 문제가 되고 있다. 세계제2의 長壽國이 된 이웃 일본에서는 노인문제가 이미 심각해지고 있으며, 한국에도 그 여파는 미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70년도의 65세에서 75년에는 68세로 늘어났으며, 5년후인 80년엔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²⁵⁾

25) 週刊朝鮮, 1977. 11. 20. (11).

人口의 老齡化에 따른 老人의 問題는 그 波紋이 政治·經濟를 비롯한 모든 領域에 擴大되고 있다. 따라서 老人問題에의 關心은 여러 學問分野에도 미치게 되었다. 政治學·經濟學·人口學·醫學·生物學·社會福祉學·社會學·法律學등, 이런 모든 分野에서 接近되고 있는 現狀이다. 及其也 그것은 綜合科學으로서의 性格을 띠게 된다. Gerontology의 立場이 그것이다. 또한 問題自体가 多樣한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共同研究가 必要하다.²⁶⁾

제주도의 경우에는 Gerontology에 관해서는 未開拓分野라 할 수 있다. 本調査研究는 이런 分野에 대한 一般적인 調査에 不遇한 것이며 앞으로 보다 더 깊은 研究가 있어야 한다.

이 一般적인 調査分析에 의해서 얻어진 점과 그에 대한 문젯점 등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健康問題에 관한 調査結果는 健康狀態가 普通以上の 老人이 57.7%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도노인은 건강한 편이다. 地域別로는 海岸地域의 노인들이 건강한 편이다.

健康秘訣을 分析한 결과는 規則적인 生活과 적당한 운동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勞動可能年齡은 65~74歲까지가 47.5%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老人의 就業問題가 停年制度和 관련하여 문젯점이 되어 갈 것이다.²⁷⁾

(2) 老人들의 宗教에 관한 관심은 無宗教가 55.5%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海岸地域에서 有宗教의 반응이 46.8%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老人들의 經濟生活에서 가족과 統合하는 경향이 조금 강하고 高齡化에 따라 統合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老後의 生計對策은 自身이 解決한다는 反應이 강해서 제주도노인들은 自助하는 정신을 보여 주고 있다.

용돈은 五천원이하가 62.0%로 제일 높게 나타나 노인들의 용돈은 零細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適性에 알맞는 職業으로는 농어촌에서인지 농사짓는 일이 강한 反應(47.5%)을 보여주고 있으며 “養畜”, “園藝”, “賣店”의 順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都市의 老人들과는 對照적인 면이 보인다.²⁸⁾ 都市에서는 福德房, 園藝의 順인데 농사와 養畜이 높은 反應을 보이므로 이 方面의 事業斡旋이나 資金助成같은 서어비스가 要望된다.

(4) 家庭問題로서 配偶者가 있는 老人이 56.0%로 나타나 老夫婦共生하는 性向이 높다.

가족과 別居하는 老人이 53.5%나 되어 老人의 獨立生活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老人들의 司祭與否에 대한 反應은 消極的이었다(57.0%).

生活形態로는 “안거리에 산다”가 52.5%였다. 이는 老人의 自助精神과 獨立生活精神의 反映으로 본다.

26) 玄斗日, 前掲論文, P. 518.

27) 朝鮮日報, 1977. 10. 13~12. (“停年”①-⑦連載記事)

28) 拙稿, 前掲論文, P. 186.

生活上의 煩悶에 관해서는 健康上의 問題와 經濟的인 問題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老人의 四苦에 해당하는 것이다.

家庭에서 즐거운 일로는 “손자와 노는 일”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40.5%). 그런데 가족이 核家族化함에 따라 老人들이 손자와 노는 일은 어려워져가고 있는데 문젯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解決하는 것은 제주도 固有의 生活構造인 이른바 “박거리”構造라고 본다(박거리에는 부임이 있다.)

(5) 老人들은 90.0%가 軟式飲食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觀光으로 오는 老人들을 위해서도 老人에게 알맞는 음식을 開發하여야 할 것이다.

(6) 제주도노인들은 가족에서나(64.0%), 交通道德面에서나(70.0%), 尊敬받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양로보험의 구실을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인간의 자연적 정리와 애정으로써의 연대감인 효에 대한 관념과 신분제 사회의 상하주종(上下主從)관계적 효의 관념을 혼동하고 있다²⁹⁾ 하거니와 우리의 주변에는 노인의 自助·獨立精神이 강하기 때문에 前者의 효에 대한 志向이 강하다고 본다.

敬老에 관한 일로는 어버이날에 敬老行事를 걸드려하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거니와 敬老日을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본에서는 9月15日を “敬老の日”로 정하고 있다.³⁰⁾ 우리의 경우는 陰曆 정월초하루를 敬老日로 삼는 것이 좋다고 본다.

(7) 老人의 餘暇善用으로서의 趣味는 거의 없었다(55.0%). “바둑, 장기”가 23.0%로 나타나고 있는 정도였다.

(8) 老人의 教育熱은 낮은 편이었다(44.5%). 그러나 海岸地域에서는 높았다(66.9%). 老人教育問題는 앞으로 敬老教室의 擴張과 더불어 本格化되어 갈 것으로 보아지거니와 또한 老人에 의한 教育(Education by older people)도 發展되어야 할 것이다.

(9) 觀光에 대한 老人들의 關心은 67.0%로 높다. 앞으로 제주도노인관광이 문제됨을 暗示하여 주는 것으로 보아지며 한편 제주도에 관광하는 老人에 대한 문제도 擡頭되어가고 있다.

(10) 老人들의 새마을運動에 대한 關心度는 크다(76.0).

老人들의 價値觀도 달라지고 있거니와 家庭儀禮準則에 대해서 積極的反應(71.0%)을 보이는 가하면 集團公園墓地에도 같은 反應(52.5%)을 보여주고 있다.

(11) 老人들에게 필요한 福祉對策으로서는 敬老堂과 保健診療所가 절실하다. 敬老堂에 대한 老人들의 熱望은 “老人들이 自力으로 敬老堂을 세웠다. 翰林邑挾才里的 敬老堂³¹⁾과 安德面沙溪里

29) 韓相範, 女性의 人間回復, (서울: 연어문화사, 1977). P. 73.

30) 金相圭, 前揭書, P. 115.

31) 제주신문, 1977. 6. 20.(3).

松竹洞敬老堂³²⁾이 그 예이다.

그리고 농촌의 노인들은 道路施設, 資金支援 등을 行政當局에 바라고 있다.

작금 老人問題는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³³⁾ 結論은 老人福祉를 위한 政策支援이 아쉽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記錄에 의하면 “純祖十四年(1814)行濟州八十以上老人養老宴”³⁴⁾이라 하여 그 당시에 도 제주도노인에 관해서 養老하였다.

제주도의 경우 老人간치정도가, 大体로 봐서, 老人을 위하는 行事の 一環이 되고 있는 現實인바, 보다 根本的인 老人對策이 있어야 할 것이다.

老人福祉對策으로는 ① 敬老思想의 涵養, ② 平生教育實施, ③ 役割의 賦與, ④ 福祉施設의 擴充 및 Program의 多樣化가 云論되고 있다.³⁵⁾

제주도노인의 福祉對策도 이와같은 면에서의 積極적인 對策들이 있어야만 “老人의 Paradise”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32) 제주신문, 1977. 4. 14.(3): 제주신문, 1977. 8. 2. (2).

33) 朝鮮日報, 1977. 9. 29.(3): 한국일보, 1977. 11. 10.(7) (韓國老人問題研究所實態調査).

34) 增補文獻備考, 十七卷, 禮考三十, 養老條 十四頁.

35) 元英祚, 朴泰龍, “우리 나라 老人問題와 老人福祉”, 韓國社會事業大學 老人福祉研究所, 노인복지연구, 創刊號(1977), P. 3.

—Summary—

A Survey of Older People in Jeju-Do

Pan Chang-young

The Problem of older people has recently raised its head even in Jeju-do so that, having been interested in this problem, I have surveyed 200 older people over sixty years old living in Jeju-do (except Jeju C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o survey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problems of older people and to develop the welfare program for older people in Jeju-do
- (2) To suggest, in the future, the direction of desirable welf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in Jeju-do.

The results of the this survey are as follows:

First, 57.7% of the surveyed older people appear to enjoy health and longevity. In particular, older people living on seashore, enjoy more health than at other places. Their key to health can be found in regular life and adequate exercise.

Second, the percentage of older people professing a religion is a little low.

Third, about 50.0% of the surveyed older people have the capacity to live independently. This is a characteristic of older people in Jeju-do. Their average pocket money a month is not over 5,000 WON.

It is esteemed that older people feel much interest in agriculture as a profession adequate for their aptitude.

Fourth, it is 53.5% for older people to live alone in spite that they have married sons. This shows the independent spirit of older people in Jeju-do.

Fifth, 90.0% of the surveyed older people like soft food so that many kinds of soft food for older people should be found.

Sixth, older people win the respect not only at home (64.0%) but also in the society (70.0%). In fact, there is no Respect Day for Older People so that it should be enacted in time to come.

Eighth, older people's enthusiasm for acquiring education seems to be a little low,

but that of older people living on the seashore is high (66.9%).

Nineth, older people's interest in sightseeing is much displayed.

Tenth, older people's interest in SAEMAUL UNDONG is much cultivated.

The values and attitude of older people are more modernized than ever.

Eleventh, what older people are in need of are respect-for-age halls and medical facilities.

It is necessary that welfare administration for older people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maintain and develop this "Paradies for Older Peoples". The desirable suggestions for that welfare administration are regarded as follows:

(1) to cultivate the thought of respect for older people.

(2) to put in operation life-education for older people.

(3) to allot the role to older people.

(4) to expand the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ople and to develop other possible programs suitable to older people.